

# 진보적 사회운동으로서 오순절운동의 가능성 모색

— 현대 종교적 담론의 한 모델 —

배 덕 만\*

## I. 머리글

## II. 몸 글

1. 오순절운동과 인종문제
2. 오순절운동과 빈곤문제
3. 오순절운동과 자본주의
4. 오순절운동과 평화운동
5. 오순절운동과 여성운동

## III. 꼬리 글

## I. 머리글

오순절운동만큼 현대 기독교인들의 특별한 관심을 끌고 있는 기독교 운동도 없을 것이다. 20세기의 시작과 더불어 미국에서 작은 분파로 시작된 오순절운동은 1세기가 지난 현재, 분파의 담장을 넘어 개신교와 천주교 속으로, 그리고 미국의 국경을 넘어 5대양 6대주로 널리 확산되었다. 현재 세계에서 천주교 다음으로 많은 신자 수를 자랑하는 오순절운동은 그 엄청난 규모 자체만으로도 학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이런 맥락에서 오순절 역사가인 빈슨 사이난(Vinson Synan)은 오순절운동이 천주교,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를 이은 ‘제4의 전통’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고 주장했다.<sup>1)</sup> 하버드대학교의

\* 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

1) 사이난은 이런 맥락에서 오순절운동을 천주교,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를 이은 “제4의 전통”으로 명명했다. Vinson Synan, *The Holiness-Pentecostal Tradition: Charismatic Movements in the Twentieth Century*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71, 1997), xi. 이 책은 한국어로 출판되었다. 『

하비 콕스(Harvey Cox)도 오순절운동의 강력한 부흥을 확인하면서, 20세기에 종교는 세속화의 물결 속에 몰락할 것이라던 자신의 70년대 예언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21세기에도 오순절운동을 축으로 한 종교의 부흥은 지속될 것이라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sup>2)</sup> 심지어 필립 젠킨스는 이 관점을 더욱 확대하여, 21세기에 전 세계의 종교는 기독교와 이슬람으로 양분될 것이며, 기독교의 생명력은 오순절 및 독립교회들에 의해 유지될 것이라고 예언하여, 뜨거운 논쟁을 야기했다.<sup>3)</sup> 물론, 오순절운동의 성장과 영향력에 대한 이런 평가들이 만인의 보편적 동의를 얻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학자들의 견해들은 현실 속에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순절운동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현대 종교현상에 대한 학문적 담론을 전개하는 것은 거의 무의미하다.

오순절운동에 대한 관심의 증대와 연구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오순절운동의 신학적 실체와 역사적 위치에 대한 심각한 오해와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성령세례에 대한 오순절운동의 독특한 교리, 방언으로 상징되는 열광적 예배, 그리고 구성원들의 열악한 사회적 배경은, 오순절운동 안과 밖에서 이 운동에 대한 오해와 논쟁을 쉬지 않고 야기해왔다. 물론 방언을 말하지 않고 오순절운동을 논할 수 없고, 열광적 예배에 주목하지 않은 채 오순절운동의 영성을 발언할 수 없으며, 이 운동의 구성원들이 지닌 독특한 사회학적 특성들에 대한 고려없이, 이 운동의 사회적 동력을 이해할 수는 없다. 그러나 문제는 오순절운동에 대한 기존의 학문적 탐구가 이런 현상들의 또 다른 측면들을 충분히 읽어내지 못함으로써, 그 속에 담긴 심오한 의미들을 명쾌히 드러내는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오순절운동이 방언을 축으로 한 성령세례에 대한 신학적 재해석의 산물임은 틀림없으나, 오순절운동에 대한 이런 해석에 강력히 반대하는 시각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충분히 거론되지 못했다. 또한 격렬한 음악, 강력한 설교, 뜨거운 기도, 그리고 신비한 종교적 체험 등으로 가득한 예배가 현 오순절운동의 제의적 특징임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이 운동이 당대의 심각한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예민하고 순발력 있게 반

세계오순절성결운동의 역사』, 이영훈·박명수 역 (서울: 서울말씀사, 2000).

2) Harvey Cox, *Fire From Heaven* (New York: Addison-Wesley Publishing Company, 1995).

3) Philip Jenkins, *The Next Christendom: The Coming of Global Christian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응해 왔던 역사들은 흔히 간과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오순절운동의 탄생을 가능케 했던 요인으로 이 운동의 초기 구성원들의 열악한 사회적 신분 및 환경 등은 오랫동안 학문적 연구의 주된 주제였다. 그러나 지난 100년 동안 오순절신자들의 사회적 신분이 급상승했으며, 이에 비례하여 사회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 반응도 급변했음은 아직까지 충분히 연구되지 못했다. 이런 현실들을 고려할 때, 오순절운동을 여전히 목시적 종말론과 열광적 성령론에 심취한 빈자들의 분파운동으로 규정할 것인가, 아니면 변화된 환경과 신분 속에서 이 운동의 실체와 정체성을 재 정의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학문적 과제로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제 본 논문에서 필자는 오순절운동의 역사 속에서 이 운동이 당대의 예민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 자신들의 독특한 입장을 견지 혹은 발전시켰던 모습을 소개함으로써, 이 운동을 목시적 분파운동으로 규정하던 종전의 이해에 수정을 요구하고, 동시에 이 운동 내에 존재하는 태생적 혹은 시대적 한계들을 지적함으로써, 향후 이 운동이 보다 건전한 사회운동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물론 이 짧은 논문으로 이 모든 과제를 온전히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이런 작은 노력들이 21세기의 종교적 공룡으로 군림하고 있는 오순절운동을 보다 거시적으로 이해하고, 그 운동의 방향을 적절히 조율하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자 할 뿐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지난 100년간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된 오순절운동의 사회활동들을 인종, 빈곤, 자본, 평화, 여성의 범주로 구분하여 간략히 살펴보고, 진보적 사회운동으로서 오순절운동의 가능성을 타진할 것이다.<sup>4)</sup>

## II. 몸 글

### 1. 오순절운동과 인종문제

지금까지 발견된 오순절운동에 대한 가장 심각한 오해는, 오순절운동을 ‘방언운동’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물론 방언이 오순절운동의 가장 중요한 상징임

4) 이 분야의 선구적 연구로는, 빈슨 사이난, 『세계오순절성결운동의 역사』, 233-70과 Alan Anderson, *An Introduction to Pentecostalism*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261-78이다.

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방언은 오순절운동의 중요한 신학적 특징으로서, 성령세례에 대한 보다 심각한 논쟁의 한 주제이다. 이 외에도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등의 중요한 교리들이 동일한 무게로 그 운동 안에서 신앙 되고 있다. 그러므로 오순절운동을 방언운동으로 환원하는 것은 오순절운동에 대한 가장 지독한 왜곡이다.<sup>5)</sup>

전통적으로 오순절운동은 비사회적·비정치적 신앙운동으로 간주되어왔다. 물론, 이런 이해도 일정부분 역사적·신학적 근거를 지니고 있다. 오순절 사회학자인 로버트 앤더슨(Robert M. Anderson)에 따르면, 본래 오순절운동은 주로 하층계급 출신들로 구성되었기에, 그러한 계급적 특성상 사회변혁운동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근본주의의 영향 하에 묵시적 종말론을 수용하면서, 비사회적 보수운동으로 변질되었다고 한다.<sup>6)</sup> 하지만 이런 일반적 인식과 현실에도 불구하고, 오순절운동 내에 진지하고 심각한 사회적 관심 및 구체적 참여의 기록들도 수없이 존재한다. 따라서 오순절운동을 비사회적·타계적 운동으로 규정하는 것도 오순절운동에 대한 피상적 이해에 불과하다.

또 하나의 오해는 오순절운동이 인종 차별적 종교라는 주장이다. 오순절운동의 대표적 교단들이 흑인교회와 백인교회로 분열된 현실, 초기 오순절 선교사들이 선교지에서 보여준 인종 차별적 태도, 그리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오순절 교회들이 인종 차별적 국가정책에 충실했던 경험들이 그런 비판의 근거들이다.<sup>7)</sup> 물론 이런 비판도 설득력이 있고, 귀담아들어야 할 중요한 지적이다. 그러나 이것도 오순절운동의 역사와 현실에 대한 전체적 이해에 실패한 일방적 오해일 뿐이다. 오히려 인종차별에 반대하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던 수많은 역사적 증거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종문제는 오순절운동의 태동과 함께 시작되었다. 일반적으로 현대 오순절운동은 1901년 1월 1일, 토페카에서 찰스 팔함(Charles F. Parham)이 운영하던 베델 성경학교에서 아그네스 오즈만(Agnes Ozman)이란 여학생이 방언을

5) Donald W. Dayton, *Theological Roots of Pentecostalism* (Peabody, MA.: Hendrickson Publishers, 1987). 이 책도 한국어로 번역되었다. 조종남 역, 『오순절운동의 신학적 뿌리』 (서울: 기독교서회, 1993).

6) Robert M. Anderson, *Vision of The Disinherited: The Making of American Pentecostalism* (Peabody, MA.: Hendrickson Publishers, 1979).

7) Allan Anderson, "The Dubious Legacy of Charles Parham: Racism and Culture Insensitivities among Pentecostals," in *Pneuma* vol. 27 (Spring, 2005): 57-63.

한 사건에서 기원을 찾는다. 그런데 백인이었던 팔함은 당시 미국의 대표적 백인 극우 단체인 KKK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을 정도로 백인우월의식이 투철했던 인물이다.<sup>8)</sup> 하지만 1906년부터 1909년까지 로스엔젤레스 아주사 거리에서 ‘오순절부흥운동’을 주도하며, 이 운동을 미국 전역과 세계로 확대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윌리엄 조셉 시무어(William Joseph Seymour)는 흑인 목사였다. 시무어의 집회에 참석했던 프랭크 바틀맨(Frank Bartleman)에 따르면, 아주사 부흥집회에서 흑인과 백인을 구분하는 전통적 경계선이 성령에 의해 지워졌다.<sup>9)</sup> 실제로 그 집회에 ‘흑인, 백인, 멕시코인, 이탈리아인, 중국인, 러시아인, 인도인’이 함께 참석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07년에 찍은 그 선교회 사역자들의 단체사진에는, 거의 비슷한 비율로 흑인과 백인이 섞여 있다. 또한 시무어의 전기를 쓴 더글라스 넬슨(Douglas Nelson)은, 아주사 거리집회에서 시무어 설교의 핵심은 방언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인종의 장벽을 허무는 것이었다고 주장한다.<sup>10)</sup> 이런 기록과 평가는 오순절운동의 탄생과 인종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운명적으로 결합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런 초기의 이상적 경험은 당시 미국사회가 처한 문화적 환경 속에서 극심한 갈등과 위기를 경험하며 굴절되었다. 그것은 미국이 내전을 치를 정도로 흑인 문제가 미국사회의 아킬레스건이었고, 특별히 오순절운동이 급속히 확산된 남부에선 흑인에 대한 인종적 편견이 극에 달해 있었기 때문이다. 성령의 초자연적 현존을 통해, 예배 속에서 인종차별의 벽이 무너졌으나, 이 운동이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만난 사회적 장벽은 너무 높았다. 오랫동안 인종 차별적 문화 속에서 성장한 대다수의 백인들은 그런 오순절적 체험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편견을 쉽게 극복할 수 없었다. 결국 이런 현실적 장애와 한계 앞에

8) 팔함의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상반된 해석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팔함 비판자들은 팔함을 인종차별주의자로 비난하지만, 팔함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팔함이 당대의 다른 인종차별주의자들에 비해서 상당히 온건한 입장을 견지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이런 상반된 입장에 대해서는 James R. Goff, Jr, *Fields White Unto Harvest*와 Craig Borlase, *William Seymour: A Biography* (Lake Mary, FL.: Charisma House, 2006), 77-84과 Allan Anderson, “The Dubious Legacy of Charles Parham: Racism and Culture Insensitivities among Pentecostals,” 51-64를 참조하시오.

9) Frank Bartleman, *Azusa Street* (New Kensington, PA.: Whitaker House, 2000), 54.

10) Nelson, Douglas, “For Such a Time As This: The Story of Bishop William J. Seymour and the Azusa Street Revival,”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Birmingham, UK.: University of Birmingham, UK, 1981),

서, 1914년 이후 미국 오순절운동은 인종적 차이에 따라 교단이 분열되는 역사적 흥역을 치러왔다. 미국에서 가장 큰 두 개의 오순절 교단인 하나님의 성회(Assemblies of God)와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파(Church of God in Christ)가 각각 백인과 흑인을 대표하는 교단이 된 것은 그 흥역이 남긴 뼈아픈 상처들이다.<sup>11)</sup>

그러나 이런 현실적 난관 속에서도 인종차별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오순절운동 내의 노력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다. 에이미 샘플 맥펠슨(Aimee Semple MacPherson)과 오랄 로버츠(Oral Roberts)를 포함한 수많은 오순절 부흥사들이 자신들의 집회를 모든 인종들에게 개방했고, 클리블랜드에 본부를 둔 하나님의 교회(Church of God)를 비롯한 여러 오순절 교단들이 민권운동이 한창이던 1964년,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인내는 인종차별과 혐오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결의문을 채택했으며, 백인인 존 미어즈(John L. Meares)와 얼 펙(Earl Paulk) 같은 오순절 목사들이 워싱턴 D.C와 아틀랜타에 흑인과 백인이 비슷한 비율로 구성된 초대형 교회들을 세웠던 것이다.<sup>12)</sup> 뿐만 아니라 1994년 멤피스에서는 그동안 백인들로만 구성되었던 ‘북미오순절협회’가 해체되고, 모든 인종을 포함한 ‘북미 오순절 및 은사주의 교회 협의회’가 조직되었다. 이 회의에서 백인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앞으로 모든 표현들 가운데 나타나는 인종차별에 반대한다.”는 ‘인종화해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지도자들은 과거의 죄에 대한 회개의 표현으로 흑인 목사가 백인 목사의 발을, 다시 백인 목사가 흑인 목사의 발을 씻겨주었다. 이것은 지금도 ‘멤피스의 기적’으로 기억되고 있다.<sup>13)</sup>

지금도 인종 문제는 오순절운동의 뜨거운 감자로 논쟁과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종적 편견과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이를 극복하고 해결하려는 진지한 노력은 병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순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오순절운동에 대한 그대들의 편향된 이해와 평가를 수정해야 할 것이다. 반면 오순절 신자들은 그들의 빛나는 전통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문화와 전통, 그리고 이념으로 경직된 사회에서 인종적 편견

11) 미국 오순절교단들의 분열과 인종문제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빈슨 사이난, 『세계 오순절성결운동의 역사』, 209-32를 참조하십시오.

12) 배덕만, “한국 신학과 세계 신학의 한 가교로서 오순절 신학,” 『종교연구』 제38집 (2005년 봄): 186-89를 참조하십시오.

13) 빈슨 사이난, 『세계오순절성결운동의 역사』, 231.

의 벽을 허무는 일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을 때, 초기 오순절 운동가들은 성령의 권능으로 거대한 벽을 허물었다. 흑인과 백인이 성령에 취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했다. 사회적 위협과 문화적 장벽이 대단했지만, 끊임 없이 그 벽을 향해 자신들의 몸을 던졌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방언의 교리보다 더 중요한 성령세례의 증거는, 인간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사회적 통념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거뜬히 넘어섰던 역사적 경험과 동력인지도 모른다. 그런 의미에서 오순절운동의 가치를 단지 방언에 한정하지 말고, 인종문제 앞에서 보여준 오순절 선진들의 경험을 기억하며, 보다 거시적이고 변혁적인 권능을 발휘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 2. 오순절운동과 빈곤문제

흔히 오순절운동은 빈민의 종교로 인식되어 왔다. 오순절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이 대체로 가난했기 때문이다. 미국의 초창기 오순절 신자들은 가난한 백인, 혹은 전직 노예출신 흑인들이 주를 이루었고, 발생 지역도 아주사 거리(Azusa Street)처럼 도시 빈민가나, 애팔래치아 산맥의 가난한 시골마을들이 대부분이었다. 미국 밖의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한국 오순절운동의 상징인 여의도순복음교회도, 도시 빈민들을 중심으로 설립되었으며,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의 오순절운동도 비슷한 환경에서 발생하고 성장했다. 따라서 그 동안 대부분의 종교사회학자들은 오순절운동을 “상대적 박탈감”의 산물로 설명해 왔으며, 이것은 큰 반론 없이 정설로 인정되어 왔다.<sup>14)</sup>

그러나 최근에 나온 연구들은 오순절운동을 가난한 자들의 분파운동으로 인식하던 기존의 설명에 강력히 도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듀크 대학교의 그랜트 웨커(Grant Wacker) 교수는 초기 오순절 신자들의 경제적 형편을 분석한 후, 20세기 초반 미국 오순절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의 경제적 수준이 당시 미국인들의 평균 수준보다 결코 열등하지 않았으며, 그 중에는 수준 높은 교육을 받고, 상당한 규모의 부도 축적한 신자들이 많았다고 주장했다.<sup>15)</sup> 또한 학자들은 1960년대 이후 미국 경제의 호황 속에 오순절 신자들의 경제적 상황

14) 이 분야의 대표적 연구서는 Robert M. Anderson, *The Vision of Disinherited: The Making of American Pentecostalism* (Peabody, MA.: Hendrickson Publishers, 1979)이다.

15) Grant Wacker, *Heaven Bellow: Early Pentecostal and American Cultur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과 교육적 환경이 개선되었으며, 그 결과 그들의 사회적 신분도 하류층에서 중산층으로 상승했고, 그들의 종교적 특성도 분파운동에서 주류신앙으로 도약했다는 해석을 꾸준히 제시해 왔다.<sup>16)</sup> 이 현상은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입증될 수 있다. 더 이상 그 누구도 여의도순복음교회를 가난한 자들의 교회라고 부를 수 없지 않겠는가!

결국, 오순절운동을 “빈자들의 분파운동”으로 규정하는 것은 더 이상 적절치 못하다. 비록 오순절운동의 설립자들이 가난했고, 그래서 초기에 분파적 특성을 보였다고 해도, 더 이상 가난한 자들의 종교로 규정할 수 없을 만큼, 현재 그들의 경제적 상황과 사회적 지위는 향상되었으며, 교회와 사회 내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순절운동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임박한 종말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다. 사실, 성령세례에 대한 신앙은 그들에게 현실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진취적 동력을 제공해 주었다. 하지만 그들의 묵시적 종말론이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들의 눈을 검정색 커튼으로 가려버렸다. 이것은 빈곤문제에도 동일한 영향을 끼쳤다. 사실 초기 오순절 신자들은 그들의 가난한 사회적 현실과 강력한 성령체험 때문에, 변혁적이고 역동적인 종말신앙을 품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근본주의의 영향 하에 묵시적 종말론을 수용했고, 결국 사회와 역사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이고 반동적인 태도를 견지하게 되었다. 이 현상을 로버트 앤더슨은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오순절운동의 근원은 사회적 불평자들이었다. 그들이 처음에 가졌던 종말의 비전은 사회질서에 대한 거부와 새롭고 보다 공정한 사회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천년왕국이 인간의 노력 없이 도래할 것이라는 믿음이 오순절주의자들의 실제적 삶의 이해에 해악을 끼치고 말았다. 소외된 자들의 비전속에 전수된 급진적인 사회개혁의 충동은 사회적 소극성, 신비주의적 도피, 그리고 가장 보수적인 순응주의로 변질되고 말았다.<sup>17)</sup>

이런 현상은 근대 오순절운동의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찰스 팔함 속

16) 오순절운동의 사회적 신분상승에 대한 설명은, 빈슨 사이난, 『세계오순절성결운동의 역사』, 251-56에서 찾아 볼 수 있다.

17) Robert M. Anderson, *Vision of The Disinherited: The Making of American Pentecostalism*, 240.

에서 그 실례를 발견할 수 있다. 그가 사역했던 켈자스 주 토페카는 후에 사회복음(the Social Gospel)의 대표적 인물이자, 소설『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의 저자인 찰스 셸든(Charles Sheldon)이 사역했던 곳으로, 민중주의가 강력하게 발흥한 곳이었다. 이곳에서 팔함은 인민주의에 깊이 동조하며 빈민들을 위한 사회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오순절운동에 관여하기 시작하면서, 팔함은 사회의 약자들에 대한 개인적 관심은 포기하지 않았으나, 참여방식은 사회학적 차원에서 종교적 차원으로 철저히 변하고 말았다.<sup>18)</sup>

하지만 이런 일반적 현상 속에도 중요한 예외들이 있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빈곤 문제를 사역의 핵심으로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했던 오순절 교회들이 존재했고, 오순절운동이 빈곤문제에 대해 무관심, 무책임했다는 냉철한 자기반성들이 최근에 뚜렷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923년에 에이미 샘플 맥펠슨(Aimee Semple McPherson)이 로스앤젤레스에 설립한 국제복음교회의 ‘천사성전’(Angelus Temple)은 미국의 대공황 때에 광범위한 사회구제활동으로 전국적 명성을 얻은 바 있고, 현재에도 도시 빈민, 고아, 그리고 노숙자들을 위한 다양한 구제활동을 전개하면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sup>19)</sup> 또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 소재한 얼 펙(Earl Paulk) 목사의 ‘채플 힐 하비스터 교회’(Chapel Hill Harvester Church)도 애틀랜타 시의 흑인빈민 지역을 대상으로 구제활동의 차원을 넘어, 정부기관과 긴밀한 협조 하에 그들의 주택문제해결, 인종차별극복,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 등, 보다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사역을 전개하고 있다. 특별히 얼 펙의 경우, 자신의 오순절적 특성을 강하게 유지하면서, 동시에 오순절운동의 전통적 종말론인 천천년설 대신 후천년설을 수용하며, 강력한 사회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sup>20)</sup>

이처럼 오순절운동 안에서 종말론은 빈곤에 대한 이 운동의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끼쳐왔다. 초기에는 묵시적 종말론 때문에 빈곤문제에 대해 수동적 태

18) 팔함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서는 James R. Goff, Jr., *Fields White Unto Harvest: Charles F. Parham and the Missionary Origins of Pentecostalism* (Fayetteville: The University of Arkansas Press, 1988)를 참고하십시오.

19) 에이미 샘플 맥펠슨에 대해서는 Edith B. Blumhofer, *Aimee Semple McPherson: Everybody's Sister* (Grand Rapids, MI.: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93)을 참조하십시오. 천사성전의 최근사역에 대해서는 이 교회의 홈페이지 <http://www.angelustemple.org>를 참조하십시오.

20) 얼 펙 2세의 종말론과 사회개혁 간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배덕만, “오순절 운동의 새로운 한 모형: 얼 펙의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 신학,” 『한국교회사학회집』 제 23집 (2007년 가을)을 참고하십시오.

도를 보였으나, 최근에는 이 같은 구습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이 다각도로 전개되고 있다. 결국 오순절운동 안에서 성령세례와 종말론이 기형적으로 결합했을 때, 이 운동은 사회의 약자들에게 등을 돌리고, 사회악에 대해 눈을 감았다. 그러나 오순절운동이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복음을 전파하고, 성령의 마음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며, 성령의 공동체와 함께 사회문제들에 적극 대응할 때, 이 운동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되고, 가장 “성경적인” 운동이 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순절 운동을 향해 따가운 시선을 보내면서도 여전히 그들로부터 우리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이다.

### 3. 오순절운동과 자본주의

1901년 미국 캔자스 주 토페카에서 방언현상의 출현과 함께 출발한 근대 오순절운동은 초대교회의 탄생을 가져온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의 근대적 재현으로 이해된다. 소위 “은사증지론”을 근거로, 초대교회에 발생한 초자연적 사건들이 현재에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믿는 개혁주의 신학에 대항하여, 오순절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운동을 “늦은 비 운동”(Later Rain Movement)으로 칭하며, 성령에 의한 신비적 현상들이 자신들을 통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한다.<sup>21)</sup> 오순절운동의 중요한 성서적 본문인 사도행전 2장 43절-47절에는 성령강림 이후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순절 성령강림을 통해 탄생한 초대교회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기사와 표적의 출현’과 ‘물질을 공유하는 신앙·생활공동체의 탄생’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을 오순절 사건의 종교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언급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자, 방언과 신유 같은

21) Donald W. Dayton, *Theological Roots of Pentecostalism*, 26-8.

초자연적 은사들이 나타났고, 동시에 성령을 체험한 이들이 사적 이익 및 소유를 포기하면서 경제적·종교적 공동생활을 실천한 것이다. 그 결과 교회가 세상의 칭송을 받게 되었고, 양적 성장도 경험할 수 있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성령강림의 구체적 결과물이었으며,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케리그마의 핵심이었다.

오순절 신자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초대교회 오순절의 정신을 가장 온전히 보존하는 교회라고 믿고 있으며, 20세기에 이 운동이 전 세계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을 그런 믿음의 구체적 증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오순절의 역사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상황은 그처럼 간단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근대 오순절 운동은 성령의 역사를 ‘기사와 표적의 출현’에 한정함으로써, ‘물질을 공유하는 신앙-생활공동체 형성’에까지 온전히 이르지 못했고, 그런 불균형은 초기보다 현재에 이르러 더욱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순절운동과 물질 혹은 자본과의 관계를 초기와 현재로 대비하여 살펴볼 때, 분명히 드러난다.

먼저, 초기 미국 오순절운동은 빈민들을 중심으로 출현했고, 신비주의적 종교체험과 묵시적 종말신앙에 몰두했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오히려 당시 그 영향력이 급증하던 상업주의, 자본주의, 그리고 제국주의의 위험성을 감지하고, 이를 맹렬히 비판하며 경계하는 목소리가 오순절 그룹 내에서 터져 나왔다. 예를 들어, 근대 오순절 운동을 시작한 찰스 팔함(Charles F. Parham)은 “미국이 상업적, 제국주의적 팽창의 제단에 받쳐진 수천의 인간 희생물이 피로 물들었다,” “시정부의 핵심적 자원은 아들과 딸의 피가 무자비하게 짓밟히는 살롱, 사창가, 술통에서 거두어들이는 피 묻은 돈이다,” “세상의 정부들은 민중 대신 부자, 귀족, 그리고 금권정치가의 손에 장악되었다”라고 현대 자본주의의 병폐를 통렬히 비판했다. 적어도 팔함의 눈에는 상업주의, 자본주의, 제국주의가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이것이 미국의 정치, 경제, 외교, 그리고 교회를 장악하여, 미국의 운명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그는 “이 나라가 벌을 받지 않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나라를 멸하실 것이다”라고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고통 중에 있는 과부와 고아들을 방문하여, 정결하고 흠 없는 신앙을 실천하는 것”을 그 해법으로 제시했다.<sup>22)</sup>

22) 자본주의에 대한 팔함의 비판적 시각에 대해서는, 배덕만, “초기 오순절운동 지도자들의 종말론 연구: 사회개혁에 대한 시각을 중심으로,” 『역사신학논총』 제11집

하지만, 최근의 오순절운동은 전혀 다른 생각과 관행의 지배를 받고 있다. 오순절 신자들의 신분과 경제력이 상승하고, 오순절운동의 규모가 거대해지면서 오순절 지도자들의 생각도 큰 변화를 겪었다. 한국에서도 오순절운동을 대표하는 여의도순복음교회가 가장 부요한 교회가 되었고, 조용기 목사의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에는 물질적 축복이 핵심요소로 기능하고 있으며, 많은 학자들이 조용기 목사와 여의도 교회를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가장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례로 꼽는다.<sup>23)</sup> 오순절운동의 대표적 나라 중 하나인 브라질의 경우, 6백만 명의 회원을 자랑하는 “우주적 하나님 나라 교회”(Igreja Universal do Reino de Deus)는 가난한 신자들에게 강렬한 영적 체험과 “번영과 물질적 축복”을 약속하면서 초대형 교회로 급성장했고, 브라질 최대의 텔레비전 방송국, 정당, 그리고 프로축구팀을 소유한 재벌교회가 되었다.<sup>24)</sup> 이처럼 오순절 교회들은 영적 신비체험과 물질적 축복에 동일한 가치를 부여하면서, 자본주의 체제에 탁월하게 적응했다. 심지어 미국의 대표적 은사주의자인 팻 로버트슨(Pat Robertson)은 한발 더 나아가, 자본주의 체제를 옹호할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 정당화했다. 그는 정부의 확대, 부의 재분배, 누진세 등을 공산주의 음모로 규정하며 반대했는데, 특히 부의 재분배에 대해, “하나님의 질서 속에, 부의 재분배 같은 것은 없다”고 단언했다. 또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에게 질투심을 갖고 있으며, 정부권력을 이용해서 부자들의 재산을 빼앗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사회복지제도를 반대했다. 뿐만 아니라 제3세계 빈곤 국가들이 미국을 시기하여 UN을 통해 미국의 부를 유출시키고 있다며, UN을 맹렬히 공격하기도 했다.<sup>25)</sup> 이것은 자본주의에 성공적으로 적용한 수준을 넘어, 자본주의의 수호자가 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초대교회에 입했던 성령은 인간의 이기적 욕심을 억제하고, 그들이 소유한 물질을 타인들과 공유케 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신령한 공동체’를 탄생시켰다. 성령은 ‘물질’ 그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다. 물질도 창조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대신, 성령은 물질에 대한 신자들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물

(2006. 6): 132-65를 참조하십시오

- 23) 박명수, “한국교회사를 통해 조명해 본 조용기 목사의 오중복음,” 『영성과 리더십』, 홍영기 저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3), 236-38.
- 24) 이 교회에 대한 최근의 상세한 정보는 <http://newsmission.com/news/2006/09/01/1112.12970.html>에서 찾아볼 수 있다.
- 25) 배덕만, “오순절-은사주의 운동의 새로운 한 모형: 팻 로버트슨(Pat Robertson)을 중심으로,” 『종교와 문화』 제11호 (2005): 137-8.

질의 노예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물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로 말이다. 이 점에서, 현대 오순절운동은 분명히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성령이 물질축복의 동력으로, 오순절운동이 자본주의의 시민종교(civil religion)로 환원되는 것은 성령과 오순절운동의 심각한 왜곡이기 때문이다. 역으로, 성령을 통해 물질적 한계를 극복하고, 자본주의의 병폐를 치유하며, 맘몬의 폭력에 저항할 수 있다면, 오순절운동은 다시 한 번 부흥과 개혁의 중심에 설 수 있을 것이다.

#### 4. 오순절운동과 평화운동

오순절운동을 이해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관찰 주체의 관점에 따라, 이 운동은 방언운동으로 정의되기도 하고, 세기말의 종말적 현상으로 규정되기도 한다. 성령론을 중심으로 한 신학논쟁의 산물로 이해되기도 하며, 소외된 자들의 저항적 사회운동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하지만 오순절운동의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실이 있다. 그것은 운동이 성령, 종말, 방언 같은 특수한 종교적 신념을 품은 사람들에게 의해 “20세기 초반의 미국 사회”라는 구체적 정황 속에서 출현하고 성장했다는 사실이다. 이 땅에 밭을 딛고 서서 하늘을 우러르는 사람들, 여전히 육을 지닌 채 영의 권능에 붙들린 사람들, 이 땅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천국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들, 종교적 이상을 품고 있으나, 현실의 물리적 압력에 노출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오순절 신자들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역설적 존재론을 가장 극명하게 표출시킨 사건이 전쟁이었다.

이런 역설적 존재론을 살아가는 오순절 신자들은 전쟁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쟁에 대한 그들의 입장은 그들의 역설적 존재론에 직접적 영향을 받으며, 다양하게, 때로는 모순적 실체를 노출하며 전개되었다. 일반적으로 오순절운동 초기의 지도자들은 평화주의에 근거해서 전쟁에 반대했다. 예를 들어, 찰스 팔함은 1898년에 발발한 미국-스페인 전쟁을 반대했고, 미국이 필리핀 문제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자발적 살인자들”이라고 비판할 정도로 강력한 반전주의자였다. 한편 초기 오순절운동의 확산에 크게 기여한 프랭크 바틀맨(Frank Bartleman)은 롬12:19, 13:9, 마5:9, 갈6:10, 딤후2:8, 야4:1 등을 토대로, 어떤 이유로든 피 흘리는 것에 반대했고, 국가에 의해 합법적으로 수행되

는 전쟁마저 “합법적 살인”에 불과하며, 인간적 경제적 자원을 탕진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할 뿐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특별히 그가 유럽에 머무는 동안 제1차 세계대전이 발생하자, 그는 기독교인들, 특히 오순절 신자들에게 국가의 전쟁 수행에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지 말라고 강력히 촉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1917년 4월 28일에, 하나님의 성회 이사회는 자신들의 평화주의 원칙에 근거해서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발표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인 우리는 비록 충성된 시민으로서의 모든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명을 실제로 파괴하는 전쟁과 무력 저항에는 양심상 참여할 수 없다고 선언할 수밖에 없다.” 이런 평화주의 원칙에 근거한 반전사상은 톰린슨(A. J. Tomlinson)의 하나님의 교회와 찰스 메이슨(Charles Mason)의 하나님의 교회(그리스도파) 같은 대표적 오순절 교단들에 의해서도 핵심적 신앙고백으로 선포되고 실천되었다.

이 같은 초기 오순절운동 지도자들의 평화주의 및 반전사상은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근본적 변화를 겪게 되었다. 미국에서 평화주의는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한 도피주의로 규정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메노나이트와 퀘이커주의 같은 평화주의 교회들이 심한 비난과 박해의 대상이 되었다.<sup>26)</sup>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평화주의를 지지하던 오순절 교회들도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대표적 반전교단이었던 하나님의 교회(그리스도파)를 이끌던 찰스 메이슨은 장병징집을 반대하고, 전쟁에 반대하는 선동적 발언들을 때문에 두 차례나 FBI 조사를 받았으며, 같은 교단의 제시 페인 목사도 1918년 4월에 그 지역의 폭도들에 의해 심한 모욕과 폭행을 당하였다.<sup>27)</sup>

결국 이런 사회적 압력과 국가적 탄압이 강화되면서, 초기에 평화주의를 지지하던 오순절 교회 지도자들 및 교단들이 종전의 입장을 수정하고, 적극적으로 전쟁을 지원하고 정당화하기 시작했다. 전쟁 개입에 강력히 반대했던 찰스 메이슨은 1917년 8월부터 미국의 제1차 세계대전 참전을 지지하며, 전쟁채권

26)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미국교회의 입장이 반전에서 참전으로 선회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George M. Marsden, *Fundamentalism and American Cultur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141-53을 참고하시오.

27) 초기 오순절운동의 반전사상과 그로 인한 고초에 대해서는 Mickey Crews, *The Church of God: A Social History* (Knoxville, T N.: The University of Tennessee Press, 1990)를 참조하시오.

과 전쟁우표 구입에 열정적으로 참여했고, 미국의 참전을 결정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치하했으며, 동시에 독일 황제를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전쟁 짐승”으로 선포하며 비난했다. 한편 하나님의 성회 총회장을 두 차례나 지낸 벨(E. N. Bell)은 평화주의자들의 주장에 반대했으며, 하나님의 성회 신자들을 향해 군대에 자원하도록 독려했고, 전투요원으로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인류를 위한 다른 봉사를 통해서라도 국가에 대한 자신들의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예수님도 로마 정부에게 세금을 내셨으므로, 그들도 전쟁 채권을 구입해야 하며, 국가 권력이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설교했다.

그렇다면, 설립초기부터 평화주의를 신봉했던 오순절 교회들이 왜 전쟁기간 동안 자신들의 소신을 철회하고 전쟁을 인정하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세력으로 돌변했을까? 듀크 대학교의 그랜트 웨커(Grant Wacker) 교수에 따르면, 먼저, 초기 오순절 신자들이 자신들의 이중적 시민권, 즉 천국시민과 미국시민 사이에서 정확한 자리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둘째, 그들이 자신들의 성령론을 현실의 구체적 문제에 학문적으로 철저히 적용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셋째, 자신들의 이상과 억압적 현실 사이의 간격을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한다. 결국, 천국과 미국, 영과 육, 그리고 이상과 현실의 긴장 속에서, 오순절 신자들은 그런 실존적 긴장을 변증법적 지양으로 승화하는 대신, 현실에 굴복, 혹은 적용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현실적 적응 혹은 굴복의 역사는 오순절운동만의 어두운 과거가 아니었다. 그들만이 유독 역사에 대해 무관심하고, 사회에 대해 무책임하기 때문만도 아니었다. 당시 대부분의 종교들이 동일한 길을 선택했고, 동일한 역사의 흔적을 남기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오순절운동의 역사적 굴절에 대한 신학적 면죄부는 될 수 없다. 정녕 성령이 자유와 해방과 평화의 영이라면, 그리고 초기 오순절 신자들이 그런 신념 속에 당대의 주류 문화에 용기 있게 항거했다면, 21세기 오순절 신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 역사적 재평가를 시도하고, 현재의 자신들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특별히 우리의 청년들이 중동의 전쟁터에 파병되어 있고, 한반도에서 전쟁의 긴장이 해소되지 않는 현실에서, 평화의 영이신 성령의 본질과 오순절운동의 평화주의 역사는 한국 교회를 위해 중요한 신학적·역사적 준거가 될 수 있다.

## 5. 오순절운동과 여성운동

흔히 오순절운동의 기원에 대한 역사적 서술은 찰스 팔함(Charles F. Parham)과 윌리엄 시무어(William J. Seymour)라는 두 명의 걸출한 남성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전자는 성령세례와 방언을 결합하여 오순절운동의 신학적 토대를 마련했고, 후자는 로스 엔젤레스 아주사 거리 부흥회를 주도함으로써, 이 운동의 세계적 확산을 가능케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배후에 혹은 그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오순절운동의 탄생에 결정적 기여를 한 여성들이 있었음은 쉽게 간과되고 있다.

현대 오순절운동의 기원은 1901년 1월 1일, 캔자스 주 토페카에서 팔함의 베델 성서학원 송구영신 기도모임에서 발생한 방언사건이다. 이때 최초로 방언을 한사람은 아그네스 오즈만(Agnes Ozman)이라는 당시 30세의 여학생이었다.<sup>28)</sup> 비록 그녀 전에도 방언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성령세례를 받았던 사람들도 많았지만, 오즈만의 방언에서 이 두 가지가 최초로 결합되어 나타났다. 이로써 팔함이 세운 오순절 신학이 구체적 경험에 바탕을 둔 신앙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결정적 전기가 마련되었다.

한편 흑인 성결운동가였던 윌리엄 시무어를 권면하여 텍사스 주 휴스턴에서 팔함이 운영하던 임시 성경학교에 참석하여 오순절운동을 체험하게 하고, 후에 시무어가 로스 엔젤레스의 보니 브레이 가(Bonnie Brea Street, 이곳에서 먼저 시무어의 주도로 성령운동이 일어났고, 보다 넓은 장소를 물색하다 아주사 거리로 이주하여, 그 곳에서 오순절운동이 세계적 운동으로 확산됨)에서 오순절운동을 위해 분투할 때, 그의 초청으로 그곳을 방문하여 시무어가 이끌던 모임에서 방언이 터지게 만들었던 인물이 루시 페로우(Luch Farrow)였다. 그녀의 권면과 영적 능력이 없었다면, 시무어는 오순절주의자가 될 수 없었고, 아주사 거리의 부흥운동도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루시 페로우 외에도 시무어의 오순절 사역에서 기억해야 할 인물은 그의 아내였던 제니 무어(Jennie E. Moore)였다. 그녀는 아주사 거리 부흥기간 동안, 그 모임을 이끌던 주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시무어가 세상을 떠난 1922년부터 자신이 세상을 떠난 1936년까지, 남편이 설립한 아주사 거리 선교회를 이끌었다. 뿐만 아니라, 플로렌스 크로포드(Florence Crowford)는 1906년부터 아주사 거리 부흥회에서 윌리엄 시무어와 동역했던 여성 지도자였으며, 1909년에 오리건 주로 이

28) 빈슨 사이난, 『세계오순절성결운동의 역사』, 120.

주하여 ‘사도적 신앙교회’(Apostolic Faith Church)라는 새로운 오순절 교단을 설립했다.<sup>29)</sup>

이 외에도, 에이미 샘플 맥펠슨은 하나님의 성회에서 안수를 받은 여성 전도자로서, 탁월한 설교능력과 신유은사를 기반으로 미대륙을 횡단하며 놀라운 사역을 전개했다. 그녀는 1923년에 당시 미국에서 가장 큰 5300석 규모의 천사성전(Angel Temple)을 건축하였고, 다음 해에 ‘국제복음교회’(the International Church of the Foursquare Gospel)라는 또 하나의 대표적 오순절 교단을 설립했다. 한 달 후, 그녀는 L.I.F.E. 성서대학의 문을 열었으며, 1927년에는 미국 최초의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 KFSG를 설립하여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했다.<sup>30)</sup> 맥펠슨 외에도 20세기 대표적 여성 신유운동가로 명성을 날린 캐서린 쿨만(Kathryn Kuhlman)도 오순절운동 여성사에서 꼭 기억해야 할 소중한 이름이다.<sup>31)</sup>

이 같은 오순절운동의 미국적 상황과 더불어, 한국의 오순절 운동사에서도 여성들은 중요한 자취를 남기었다. 1907년 아주사 거리 부흥집회에서 오순절 은혜를 체험한 후, 아시아 선교의 꿈을 키워오던 메리 럼지(Mary Rumsey)는 1928년에 인천항에 도착하여 한국에 최초로 오순절 복음을 전해주었다. 그녀는 구세군 출신 허홍과 함께 서울에 “서빙고 오순절교회”란 최초의 한국 오순절 교회를 개척함으로써, 이후 한국의 오순절운동이 세계 오순절 운동의 대표적 경우로 성장하는 토대를 놓았다.<sup>32)</sup> 또한 세계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는 하나님 성회 소속의 여의도순복음교회는 그 설립 과정에서 조용기 목사의 장모이자 한국 오순절 교회의 최초 여성목사인 최자실 목사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그녀는 오산리국제금식기도원을 설립하여, 기도원운동이 한국 교회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로 발전하는데도 결정적 역할을 했다.<sup>33)</sup> 뿐만 아니라, 한국의 오순절 교단들 중, 충청권을 중심으로 활발히 성장하고 있는 ‘기독교대한예수교복음교회’가 있다. 이 교회는 위에서 언급한 에이미 샘플 맥펠

29) 아주사 거리 부흥을 주도했던 여성들에 대한 종합적 연구로는 Estrela Alexander, *The Women of Azusa Street* (Cleveland, Ohio: Pilgrim Press, 2005) 이 있다.

30) 맥펠슨에 대해서는 위에 언급한 Blumhofer의 연구를 참조하십시오.

31) 쿨만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는 Allen Spraggett, *Kathryn Kuhlman: The Woman who Believes in Miracles* (NY: World Publishing Co., 1970)가 있다.

32) Vinson Synan, *The Holiness-Pentecostal Tradition*, 139-41.

33) 최자실, 『나는 할렐루야 아줌마였다』(서울: 서울서적, 2005)를 참조하십시오.

슨의 ‘국제복음교회’를 통해 한국에 세워진 교단으로, 여성 목사인 김신옥 목사에 의해 1970년에 설립되었다.<sup>34)</sup>

이렇게 미국과 한국에서 오순절운동이 크게 발전하고, 그 배후에 여성들의 역할이 크게 부각된 것은 교회사에서 여러 모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초대교회 이후, 여성들은 교회에서 침묵을 강요당했고, 남성들에게 종속된 제2의 성으로서 2차적 지위에 머물러 있었다. 특별히 기존 교회가 신학, 교리, 예전, 전통, 그리고 엘리트 중심의 교권구조를 완성한 이후,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들이 교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가능성은 구조적으로 박탈되었다. 그러나 엄격히 제도화되어 있는 전통적 예전보다 성령의 자유로운 역사에 근거한 영적 체험을 강조하고, 체계적인 신학교육과 학위를 중시하는 대신, 성령의 체험과 능력구비를 강조하는 오순절운동 안에서 여성들은 훨씬 자유로운 신앙체험과 사역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다. 즉, 열정적 기도, 찬양, 간증, 춤, 그리고 그 외의 다양한 형태의 영적 반응을 강조하는 오순절 예배 속에서 여성들은 영적 카타르시스와 해방을 체험할 수 있었고, 성령의 강림에 의한 영적·사회적 해방을 꿈꾸는 구약의 요엘서를 중시하는 오순절 신학을 배경으로 오순절운동 안에서 신앙적·신학적 친화성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결과 여성들은 그 어떤 기독교 운동 및 기관들 보다 오순절운동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사역자로서 자신들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런 점에서 오순절운동은 교회사에서 여성의 역할을 증대하고 그 가치를 고양시키는데 그 어떤 운동 및 단체보다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평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오순절 운동 내에는 이런 긍정적 측면과 함께 심각한 문제점도 존재한다. 그것은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 미국과 한국의 오순절운동에서 여성들의 사역이 근원적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많은 오순절 교단들이 여성 안수를 허용하고 있지만, 그들의 사역 범위는 설교자 혹은 선교사의 역할에 한정되고, 성찬, 주례, 장례 등의 목회적 임무는 수행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다. 또한 많은 교단들이 여성들에게 교단 내에서 정치적으로 책임 있는 직위를 허락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여성의 역할 및 참여와 관련해서, 그 동

34) 김신옥 목사에 대해서는, 임열수, “김신옥 목사의 사역과 목회신학,” 『건신 김신옥 목사 성역 33주년 기념논문집: 리더십, 영성, 신학』, 기념논문집간행위원회 편 (대전: 복음신학대학원대학교 출판부, 2005), 29-60을 참고하시오.

안 교회사에서 중요한 공헌을 해온 오순절운동이 주류 교단들에게 뒤쳐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결국, 오순절 교회가 여성들에게 남성들과 동등한 정치적 자격과 권한을 부여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다양한 능력을 성령의 해방적 능력 속에서 자유롭게 발휘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오순절운동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오순절운동이 교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운동으로 발전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시험대가 될 것이다.

### Ⅲ. 꼬리 글

이상에서 진보적 사회운동이란 측면에서 오순절운동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 보았다. 이미 언급했듯이, 오랫동안 오순절운동은 목시적 종말론과 열광적 성령운동에 몰두한 결과, 탈역사적, 반사회적, 비정치적 성향의 분파운동으로 혹독한 비난의 대상이 되어 왔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순절운동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더 이상 학문적 설득력이 부족하다. 물론 오순절운동을 진보적 사회운동으로 정의하는 것도 명백한 역사적 기록들을 무시한, 비현실적 독백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오순절운동 내부의 신학적 약점과 부정적 역사경험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이 진보적 사회운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제, 오순절운동이 진보적 사회운동으로 발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을 제시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

먼저, 오순절운동이 진보적 사회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신학적·역사적 근거와 전거는 충분하다. 오순절운동은 극심한 인종차별의 문화 속에서 인종적 편견과 장벽을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하려고 했던 선구적 경험을 갖고 있다. 오순절운동은 전쟁의 광증이 편만했던 시절, 반전의 깃발을 흔들던 평화의 전령들로서 기능했었다. 오순절운동은 대공황의 한파가 맹위를 떨치던 시절, 빈자들을 위해 동분서주하던 선한 사마리아인들이었다. 오순절운동은 가부장적 통념이 시대적 에토스로 기능하던 시절, 여성들의 해방을 선도하던 성령의 여인들을 알고 있었다. 오순절운동은 자본의 폭력 하에 세계가 제국의 식민지로 전락하던 시절, 거대한 맘몬을 향해 정의의 돌을 던지던 소년 다윗과 같았다. 이런 모습들이 보다 다듬어지고 정교해진 모습으로 복원될 수 있다면, 21세기의 오순절운동은 교회의 담장 안팎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런 주목할 만한 신학적 가능성과 역사적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측면들은 그동안 오순절운동에 대한 학문적 연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었다. 물론 해방신학적 관점을 선호하는 일부 학자들에 의해 오순절운동의 사회학적 측면이 탐구되긴 했지만, 아직 그 깊이와 범위에 있어서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오히려 오순절운동의 신학적 특성(특히, 성령론, 신유론, 종말론)과 방언을 중심으로 한 초자연적 종교현상에 연구가 집중되었다. 그 결과, 일종의 사회현상으로서 오순절운동의 특성, 오순절운동의 본질적 특성의 하나로서 사회 개혁적 성향, 그리고 오순절운동 구성원들의 사회적 신분상승으로 초래된 오순절운동의 사회적 정체성 변화 등에 대한 적절한 연구가 아직도 충분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미 분파적 특성의 종교현상에서 대표적 종교전통의 하나로, 미국의 토착적 종교운동에서 범세계적 종교문화로, 순수한 종교집단에서 거대한 정치권력으로 성장한 오순절운동은 이제 신학과 역사학의 범주를 넘어, 사회학, 정치학, 그리고 경제학의 영역에서 심도 있게 검토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런 학문적 여과과정을 통해, 오순절운동의 현재적 의미와 가치가 더욱 분명히 드러나고, 이 운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침들이 보다 총체적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오순절운동이 건전한 사회운동으로 성숙하기 위해 반드시 극복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하나 있다. 본래 오순절운동은 미국에서 도시와 농촌의 소박한 성도들을 중심으로 탄생되었고, 그들을 중심으로 역사가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사회의 전반적 경제성장과 그들 내부의 신분상승을 통해, 오순절운동은 미국의 종교서클 안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사회 내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일단 오순절운동은 수적으로 미국에서 가장 큰 개신교 집단이 되었다. 오순절운동은 미국복음주의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Evangelicals)뿐만 아니라, 세계교회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안에서도 그 영향력이 점증하고 있다. 이 운동은 이미 전통적인 오순절의 범주를 넘어서, 미국의 대표적 주류교단들 속으로 강력히 침투하였다. 심지어 그들의 영향력은 학계, 경제계, 그리고 정치계에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더 이상 오순절운동은 미국사회의 비주류가 아닌, 주류가 되었다. 이 현상은 한국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 그 대표적 상징이 여의도순복음교회이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오순절운동을 대표하는 교회의 차원

을 넘어서, 20세기 기독교를 대표하는 교회가 되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오순절의 담을 넘어, 한국개신교 연합운동의 물질·인적 중심으로 기능하고 있다. 여의도순복음교회의 담임목사인 조용기 목사는 한국의 교회뿐만 아니라 언론과 정계에까지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같은 현대오순절운동의 세력 확장은 오순절운동이 진보적 사회운동으로 성장하는데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사회의 주변이 아닌 중심에 위치함으로써 예언자적 비판 기능을 상실하고, 자본주의 은총의 가장 큰 수혜자들이 됨으로써, 맘몬에 대한 지지자들이 되었으며, 자본, 빈곤, 여성, 평화, 그리고 환경문제에 대해 침묵함으로써, 대표적 보수주의자들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오순절운동이 자신과 사회에 대해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며, 예언자적 기능과 제사장적 기능을 건강하게 수행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오순절운동은 21세기를 선도하는 시대의 희망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실패한다면, 21세기를 역사의 황무지로 변질시키는 시대적 재앙이 될 수도 있다.

<Abstract>

## Pentecostalism as a Progressive Social Movement

Bae, Dawkmahn(Aisa LIFE University)

In general, Pentecostalism has been known as one of the conservative Christian subcultures in America. Given its other worldly worldview based on the apocalyptic eschatology, its negative attitude toward any kind of social reform movement, or its puritanical moral codes, it is at least understandable to define Pentecostalism like that.

One needs to be more cautious in judging the social dimension or substance of Pentecostalism from such a viewpoint, however, for it had more complicated history on that matter than it has been regarded. When historians pay more attention to the early history of Pentecostalism, they can encounter with priceless social heritages for which the early Pentecostals had to wrestle with formidable social prejudices against themselves.

On the contrary to the prevailing ideas on the social aspects of Pentecostalism, one can easily discover a chain of historical records about heroic behaviors of the early Pentecostals. In terms of racial reconciliation, promotion of women's rights, caring for the poor, peace movement, and criticism against capitalism, Pentecostalism was one of the leading voices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In the heydays of the Azusa Street revival, the color lines were washed away by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Such women as Aimee Semple McPherson and Kathryn Kuhlman rewrote the history of feminism. In addition, Pentecostalism was a radical socio religious movement for the poor, by the poor, and of the poor. The early Pentecostals had to stand against a series of wars in which the U.S government enthusiastically participated. Lastly, some of the leading voices in Pentecostalism played a kind of prophetic role by harshly attacking the

negative symptoms or nature of modern capitalism on the base of their eschatological worldview. In that sense, it seems possible to redefine Pentecostalism as one of the progressive social movements in the twentieth century rather than simply identifying it with a hopeless reactionary sect.

Thus, one needs to take into account or excavate such hidden historical facts of Pentecostalism, if he or she wants to comprehend its profound and complicated social substance. In addition, Pentecostals also need to overcome several stumbling blocks if they want to develop or at least preserve such a wonderful heritage. Only when they succeed in dealing with such matters as changed social status, increased financial resources, upgraded political power, and diluted religious passion or innocence, they can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social advancement as a progressive social movement in the twenty first century.